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
만기환급형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적금 가입은 쉽지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신 만기를 채운다면
목돈, 이자를 받는다는 점,
돈을 모으는 재미와
성취감을 생긴다는 점이
적금을 붓기 위해
절약하는 고통을 상쇄시켜주죠.

그런데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 보험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연금성 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 기준입니다.)



즉, 확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하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매달 보험료라는 비용을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험상품 중에
만기 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만기환급형 보험이 존재합니다.

어떤 보험들이 만기환급형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원래 만기 환급형 보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 혹은 앞으로 가입할 보험이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 증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품 자체가 만기환급형인 경우는
증권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증권 제일 위나, 아래쪽에
"만기 급부금" 혹은 "만기환급금"이란
항목이 있고, 어떤 게 만기환급금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얼마를 돌려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적혀있습니다.

대부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20년~~ 20년 납 80세 만기,

월 10만 원짜리 만기환급형

보험을 가입했고,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면

10만 원 X 12개월 X 20년 =

2,400만 원을 80세에

받게 됩니다.

← 납입이 끝나는 날이 '과기일'은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가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70%환급)

상품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100%가 아닌
70%만 환급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적립보험료를 넣은 보험

두 번째는 "적립보험료"라는
비용을 추가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원래 돌려받는 상품은
아니지만 구조를 만들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상품 설명서나
증권에서 "보험료"부분을 보면
"보장 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나뉘져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1회차보험료(할인후)	44,360 원	보장보험료	24,855 원
		적립보험료	19,506 원





적립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험상품에

저축하는 돈입니다.

이 적립보험료를
보험회사 이자로 굴려서
보험이 끝날 때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보장성금서이율 I	2.06%	80.5%	1.66%
저축성금서이율 I	2.12%	80.1%	1.70%

[출처 - 삼성화재 공시실]

보험회사 이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여기에 회사에서 떼어가는

사업비도 있다는 겁니다.

지급되는 이자도 줄어들고,
회사에서 가져가는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만기 시 냈던 보험료만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 예, 적금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적립보험료를
넣는 게 이익일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